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

[사도행전 2: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성도의 믿음의 근거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것은 그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들로 친히 부활하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행 1:3).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많은 증인들을 언급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 증인들의 글들을 통해 들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들 행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본 증인들의 글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많았다. 주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이셨다.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과 야고보 외에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보았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다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두 가지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승천과 연관되어 있다. 그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40일 후에 승천하실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한 승천하셨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의 재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의 재림의 소망과 약속도 확실한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증인들이 다 거짓말을 했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는데도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했는가? 누가 거짓말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하겠는가? 누가 거짓말을 위해 피 흘려 죽겠는가? 성경은 거짓말을 마귀의 일이며 지옥 같 큰 죄악이라고 말한다. 기독교는 결코 거짓말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의 부활을 전한 진실한 증인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함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한다.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그의 부활에 근거해 말한 것이다(행 2:32).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앞세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주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 가련한 실패자처럼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이심이 증거되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다.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증거하였지만, 그가 죽고 마셨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를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선언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하였다(롬 1:4).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그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심을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선지자이다. 또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사역을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또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신적 구주이시며 우

리의 선한 목자이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의 것들을 항상 공급해주시고 원수들의 비방이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다.

우리의 사죄(赦罪)와 칭의(稱義)를 확증함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사죄(赦罪)와 칭의(稱義)를 확증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사죄와 칭의는 기독교 복음 진리의 핵심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죄악과 불법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온 세상에 도덕적 질서는 무너진 것 같았다. 제자 가롯 유다의 배신,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로마 총독 빌라도의 불법적 판결, 민중의 무지가 이긴 것 같았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불의와 죄악을 이기셨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였다. 또 그것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위한 사죄와 칭의의 선언이었다.

사도행전 10:39-42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후에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증거했다. 사도행전 13:38-39에 보면, 사도 바울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울은 로마서 4:25에서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15:17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사죄와 칭의의 확증이다.

우리의 복된 부활과 영생을 확증함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복된 부활과 영생을 확증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들의 죄의 벌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죄의 벌과 죄값은 죽음이다. 그는 택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는 택자들의 죄를 대속(代贖)하셨고 그들을 위해 율법의 의(義)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그 사죄와 칭의의 결과는 부활과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장차 복된 몸으로 부활하고 영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고린도전서 15:20-22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주님을 죽였을 때는 죽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죄와 불법은 정의를 이겼고 죽음은 생명의 주님을 이긴 것 같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겼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긴 것 같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세상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의 확증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육신의 생명의 회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 생명의 시작이며 확증이었으며 또 현세 너머의 세계, 곧 하나님의 세계, 천국, 영생의 세계의 확증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승리였다.

요한복음 11:25-26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 몸으로 영생할 것이다. 그 몸은 다시 죽지 않는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시고 영광스런 천국에서의 우리의 영생을 확증하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증인들을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해야 한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증거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증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참 선지자, 크신 대제사장, 우리의 왕과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사죄(赦罪)와 칭의(稱義)를 확증한다. 그는 우리의 속죄와 의를 이루셨다. 우리

는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며 감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복된 부활과 영생을 확증한다. 그는 우리의 복된 부활의 첫열매이시다. 우리는 장차 그의 영광스런 몸의 형태로 부활할 것이며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복된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중심, 말씀과 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피 재앙

[출 7: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神)이 되게 하였고 형 아론은 그의 대언자(代言者)가 되게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바를 그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불러 그의 일들을 행하신다.

[3-5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고 나의 표징(표지) 소사이 (꺄꺄꺄)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모페사이 꺄꺄꺄) [나의 기사들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쉐파툼 꺄꺄꺄) 심판들, 징벌들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에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박케 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는 표현이 9번 나온다(4:21; 7:3; 9:12; 10:20, 27; 11:10; 14:4, 8, 17). 이것은 사람의 약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보인다. 악의 책임은 악인 자신에게 있지만, 악인의 악행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진리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그가 그의 표적들과 그의 기사(奇事)들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지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심판과 징벌을 내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친히 이루실 일이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일이다.

또 그는 그가 그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그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일은 그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 것이다.

[6-7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던라.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였다. 모세가 전에 애굽인을 죽이고 애굽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쯤이었고(행 7:23)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친 기간이 40년 가량이었다.

[8-1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리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서는 바로가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것을 아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아무 말이든지 덮어 놓고 믿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졌고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11-13절] 바로도 박사(지혜자)들과 박사(마법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마술사)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행하니 이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에는 거짓된 마술들이 성행했던 것 같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모세와 아론과 같이 행했다. 그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뱀들이 되었다. 악령들도 신기한 일을 행한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켰다. 바로는 이런 광경을 보았지만 마음이 강박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람은 기적을 본다 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

나눔을 믿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그러하였다.

[14-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17-19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불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河水)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河水)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河水)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그릇에와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것이 열 가지 재앙들 중 첫째 재앙인 피 재앙이다. 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20-25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河水)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河水)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河水)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애굽 술객들도 신기한, 초자연적 일들을 행했다.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은 강박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인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심지어 악인들의 마음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는 것은 그가 은혜를 거두심으로 그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하며 바른 생각과 판단력을 잃어버렸음을 뜻한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무능력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해 또 자기 자신에 대해 바르게 생각할 수 없고, 또 흑시 바르게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와 부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복종치 않는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사

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둘째로, 세상의 마술도 상당히 신비한 일들을 행한다. 애굽의 술객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였고 강물을 피가 되게 하였다. 마술은 악령의 활동이다. 무당이나 심령술사도 신비한 일들을 행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다르다. 마술은 사람의 호기심을 끌어 그를 종으로 삼고 그로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평안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신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또 마술을 포함한 모든 거짓된 신비한 일들을 경계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알고 믿고 섬겨야 한다.

수요일 설교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사 22:1-25] 이상(異像) 골짜기에 관한 경고말씀이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인고? 흰화하며 떠들던 소란하고 떠들썩한(바른성경)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 . .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다. 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소란과 뱀핌과 혼란의 날이여.” 19-21절,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한 나라의 평안과 전쟁, 사람을 관직에 세움과 쫓아냄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안에 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 안에서 되어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의 수비에만 힘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10-11절,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먹고 마시며 즐겼다. 12-13절,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시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우리는 쾌락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